



독후 활동지

<퓨마의 오랜 밤> 박현숙 글, 신진호 그림, 노란상상



학년 반 이름

1. 책을 읽은 후 느낀 소감과 별점을 남겨주세요.

별점	☆ ☆ ☆ ☆ ☆
이유	

2. 이 책을 읽다 보면 야생동물,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책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니 의미를 잘 알아두면 좋겠죠?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 보고,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도 만들어보세요.

동물권의 뜻	
문장 만들기	
동물복지의 뜻	
문장 만들기	

3.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멸종위기 동물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4. 퓨마라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퓨마의 생김새는 아래의 사진과 같아요. 치타, 표범, 재규어는 몸에 무늬가 있는데 퓨마는 없네요. 이 밖에도 퓨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보을까요?



▲ 위 사진은 퓨마.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치타, 표범, 재규어. /게티이미지코리아

사는 곳	
먹이	
생김새	
특징	

5.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직접 가 본 적이 없다면 동물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런 후에 동물원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함께 적어보세요.

동물원의 좋은 점	
동물원의 나쁜 점	
<p>동물원에 대한 나의 생각</p> <p>(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또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p>	

6. 억새는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자꾸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 때문에 속상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억새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어보세요.

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단 한 번도 크게 울어 보지 못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다. 내가 슬퍼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엄마도 내 앞에서 울지 않았다. “억새를 봐서라도 너무 슬퍼해서는 안 돼.” 언젠가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울지 못했고 나는 엄마 때문에 울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하필이면 교실에서 터지고 말았다. (p.28-29)

7. 역새와 민구는 절친이었습니다. 엄마들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꾸만 역새와 민구는 다투게 되고 심지어 절교까지 선언합니다. 왜 싸웠는지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곤란해진 역새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혹시 단짝 친구랑 싸워서 불편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가 친구랑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엄마랑 친구 엄마 사이도 곤란해지잖아.”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엄마들끼리 친하다고 아들들도 꼭 친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먼저 사과해. 친구는 가끔 싸울 때도 있는 거야. 그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싫다니까.”
 그런 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 따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요란스럽게 닫아 버렸다.
 “뭐 때문에 싸웠길래 저러지?”
 엄마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민구와 다시 친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민구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지. (p.86)

친구랑 싸우고 불편했던 경험 - 언제 무슨 일로 싸웠나요?	
해결 방법 - 누가 먼저 어떻게 사과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8.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18년에 대전에 한 동물원에서 일어났던 퓨마 탈출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동화입니다. '뽀롱이'가 사살된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와 뉴스 영상을 찾아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p>대전 동물원 탈출한 맹수 '퓨마'...4시간여 싸움 끝에 사살 / https://www.youtube.com/watch?v=bu_v8CT0xAM</p>	 <p>대전 동물원 탈출한 맹수 '퓨마'...4시간여 싸움 끝에 사살 / SBS 프회사 6.8만회 · 3년 전</p> <p>죽음으로 끝난 8살 퓨마 호랑이의 첫 외출 / 스포스뉴스 프회사 19만회 · 3년 전</p>
<p>뽕롱이 죽음이 불붙인 동물권 논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208</p>	 <p>사살된 퓨마에 감정어린 사람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p> <p>뽕롱이 죽음이 불붙인 동물권 논쟁</p> <p>18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한 후 사살됐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동물원을 떠나게</p>

<p>뉴스나 영상에서 본 내용 요약해서 쓰기</p>	
<p>기사를 보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p>	



